

■ 정책동향

벤처기업 技術 확보 지원 強化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선진국 기업들과의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과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벤처기업에 수요조사부터 계약체결까지 일괄 지원하는 '벤처기술 이전 투자 중개알선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韓日 및 韓美 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을 벤처산업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EU·캐나다 등과도 신규사업을 발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세계 첨단기술이 벤처기업에 의해 선도되고 있으며 세계 우수기업의 경우 국경을 초월한 첨단기술의 도입 또는 투자유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벤처기술 중개·알선 대상 국가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확대하고 대상 업무도 기술의 중개·알선에서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개발까지 확대하여 국내 벤처기업이 손쉽게 첨단기술을 확보해 국제적인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술 이전 및 투자 중개알선 체제는 벤처기업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합작투자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투자협력 타당성을 평가한 후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하게 된다.

또 통산부는 EU·캐나다·호주 등도 민관공동의 산업기술 협력, 공동개발, 합작투자 사업추진에 관심을 표명해옴에 따라 민관공동의 무역·투자협력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98년부터는 이들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통산부는 국내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선진국의 벤처기업 전문가를 초청, 우리나라 벤처기업과의 협력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학생 벤처기업 창업경연대회, 한·일 양국의 벤처기업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일 벤처기업 로드쇼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세계 우수자본재 지정事業 추진

통상산업부는 자본재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개발된 자본재중 품질·기술·가격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자본재를 '세계우수자본재'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국내

개발된 자본재 품목중 품질·기술·가격면에서 선진국 경쟁회사의 제품수준을 뛰어넘는 제품들을 세계우수자본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관련된 지정절차·기준·지원내용 등을 담은 '세계우수자본재 지정 요령'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자본재 전략품목이나 우수품질마크(EM)를 획득한 자본재 품목중 세계수준에 도달한 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20개 품목을

세계우수자본재로 지정하고 이들 자본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개발자금, 구조개선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이들 세계 우수자본재가 해외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의 자본재종합정보망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세계 우수자본재 지정사업의 관건이 적정자본재 선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품목선정에서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SO 9000 인증제 民間자율 전환

6월 1일부터 ISO 9000(품질보증체계) 인증제도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관장함에 따라 민간자율의 인증제도로 정착하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ISO 9000 인증제도 운영을 민간 자율추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서 인증기관·연수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도·감독과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ISO 9000 인증은 현재 30여개의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을 인증하는 업

무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행하였으나 이번에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정부로부터 이 인정업무를 위탁받게 됐다.

통산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ISO/QSAR(Quality System Assessment Recognition)에 의한 국제상호인정이 본격 실시될 예정인데 정부가 인정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민간기구인 QSAR로부터 정부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ISO 9000 인정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합기업 서비스 센터(Inno-NET) 업무 개시

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업이 현실적

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기업서비스

센터』를 발족시켰다.

이 센터에서는 창업, 입지, 기술, 자금, 인력, 판로, 무역 및 투자, 기초공업, 생활공업 등 9개 부문에 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통산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창업투자회사, 신용보증조합, 은행 등 107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기관을 전자네트워크로 연결하는 Inno-NET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하게 된다.

동 센터의 출범으로 기업은 컴퓨터를 이용,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히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각 기관별로 지정된 전담자가 관련기관간 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또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에 설치한 관계부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활성화위원회』(위원장 통상산업부차관)에서 협의, 결정하므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상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우선 전화 FAX, PC 통신(E-mail)을 활용하여 5월 1일부터 가동토록 하고, Inno-NET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부터는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통상산업부 정부가 다양한 정책, 제도개선을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업, 창업인에게 전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기업입장에서 실제 담당자를 파악하고 제도이용방법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 종합기업서비스센터를 가동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부부처간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을 돕는 새로운 서비스 체제로의 전환을 기본취지로 한다고 밝혔다.

■ 종합기업서비스센터 총괄기관별 자동응답 연락처

기 관 명	자동응답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WEB)
통상산업부	503-2500	503-2506	천리안 Innet
중소기업청(인력)	503-7929	503-2512	http://www.sm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 자금)	769-6652, 6631	769-6708, 6657	http://www.smi pc.or.kr
중소기업중앙회(판로)	786-4311	786-4310	천리안 jokfsbl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	829-7373	829-7367	천리안 KIC126
생산기술연구원(기술)	853-8142	861-1785	1dk56@mail kit
KOTRA(무역 및 투자)	551-4222	551-4463	http://www.kot
한국기계공업진흥회(기초공업)	369-7810	369-7898	천리안 koami 하이텔 KOAMT
한국섬유산업연합회(생활공업)	528-4068	528-4069	천리안 KOFOTI 하이텔 KOFOTI
한국전기공업진흥회(전기분야 지원기관)	3476-0271	3476-0275	http://www.KOEMA.ORG

통산부의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 3월 31일 통산부장관의 대통령 경제분야 보고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기업의 애로요인을 타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서비스체제로의 정부의 역할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 및 현업부처간 협조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기업서비스센터는 과천정부제2청사 3동(통상산업부 건물 116호)에 설치하였으며, 전화 503-2500, 500-2770~2, FAX 503-2506 또는 PC통신(E-mail)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 이용시 퇴근 이후에는 자동응답기를 가동

하여 기업이 애로사항을 자동응답기에 녹음해 두면 다음날 출근 후 검토하여 회신해 주도록 하고, FAX도 24시간 개방하여 기업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종합기업서비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으로 참여, 전기공업 분야의 창업 및 기술·자금 지원 등에 대한 애로요인을 수시로 접수 해결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 내용은 기업활성화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中期 거점기술개발 신규사업 확정

통상산업부는 올해 중기거점기술개발 신규사업으로 철도차량 추진장치, 중형 해면효과의 여객선(WIG선), 냉동공조기기의 고효율화, 차세대 소형전지, 자동제어반, 광전소자의 첨단 패키징 기술, 초고속 핵자기공명 영상진단장치개발 등 7개 사업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에 착수되는 중기거점기술 7개 신규개발사업에는 향후 5년간 민간투자분 1,135억원을 포함, 총 2,307억원이 투입되며 연구개발 3~4년차부터는 이들 제품의 시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 통산부는 내년도에 지원할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으로 10개 연구기획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98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해야 할 중기거점기술과제를 민간으로부터 발굴하기 위해 지원대상과제를 자유응모사업으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공모기로 했다.

이들 10개 확정사업 및 자유응모를 통해 선정되

는 중기거점기술개발 대상과제는 올해중 기술개발 전략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기획을 거쳐 내년도 중기거점기술개발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한편 통산부는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부품 기술, 신소재,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3년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국산화시급기술' 과제도 이번에 함께 공모했다.

이 기술과제에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중 응모할 수 있으며 과제당 지원규모는 최고 3년, 9억원으로 올해에는 130개 과제를 발굴하여 연내에 우선 총 300억원(민간투자 130억원 포함)의 기술개발비를 투입기로 했다.

■ '97년도 중기거점기술개발 신규사업 추진계획

사 업 명	개 발 기 간	개 발 비 (억원)		
		정 부	민 간	합 계
철도차량(전동차)추진장치 개발	'97-2000	75	75	150
중형 해면효과와의 여객선 핵심기술개발	'97-2001	300	300	600
냉동공조기기의 고효율화 기술개발	'97-2001	80	80	160
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	'97-2001	422	422	844
자동제어반 국산화 개발	'97-2001	180	123	303
광전소자의 첨단패키징 기술개발	'97-2000	55	65	120
초고속 핵자기공명 영상진단기기 개발	'97-2001	60	70	130
총 7개사업		1,172	1,135	2,307

자본재 전력품목개발자금 支援

통상산업부는 금년도 신규개발 자본재 263개 품목의 개발을 수행하게 될 개발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들 업체에 2,482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기계 소재부문이 170개 1,507억원, 전기·전자부문 65개 739억원, 섬유·화학부문 28개 236억원이다.

이번 선정된 개발업체는 연리 6%, 융자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장기저리 개발자금을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자본재개발에 소요되는 2,482억원중 1차년도 소요분 2천억원은 올해안에 지원되며 개발금액이 큰 일부품목의 경우 개발비를 분할하여 일부 개발비는 내년에 지원받게 된다.

통산부는 “올해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사업은 1개품목 지원한도가 작년의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대형과제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평균개발비도 9억 4,4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